

농협 남원시지부,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에 농축산물 전달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사진)는 지난 19일 '2025 사랑의 친구들 바자회'에 남원시 농축산물 200만원 상당을 바자회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오영석지부장

이번 후원은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에 동참하는 동시에, 남원시 농축산물의 우수성과 소비 촉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바자회는 오는 9월 20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유관순 기념관 앞에서 열리며, 행사 현장에서는 남원시 농축산물을 소개·판매해 도시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신선함과 품질을 직접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석 지부장은 "남원 농축산물이 바자회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는 물론 그 수익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심천심(農心天心)의 정신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초, 전국 119소방 동요 경연대회 금상

고창초등학교 합창단(담당교사 정소망)이 지난 17~18일 창원특례시 로보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6회 전국 119소방 동요 경연대회'에서 초등부 금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튼튼한 119, 대한민국 어린이 지킴이'라는 동요를 불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합창단을 지도한 교사 정소망은 지도교사상(소방청장상)을 받았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어린이들이 노래를 통해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한편 3~6학년으로 이뤄진 고창초 합창단은 지난 6월 13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대표 학교로 출전했다.

/정승성기자·고창=김영식기자



제이디로지스 등, 남원시에 드림 장학금 전달

남원시는 지난 19일, (주)제이디로지스대표 이상욱, (사)위드인사람과함께(대표 김대호)와 최경식 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드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인 (사)위드인사람과함께와 남원시가 협력, 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아동 5명을 선정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제이디로지스는 (사)위드인사람과함께를 통해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주시와 김제시 등 총 3개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정기 후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소방서, 인공신장실 화재대응 강화 컨설팅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는 올해 6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무주군립요양병원 인공신장실(투석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화재대응 특별 현장안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2022년 경기도 이천의 한 병원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48명이 부상당한 안타까운 사고를 교훈 삼아 무주소방서 주도로 진행, 투석 중인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무주소방서에서 컨설팅에 나선 무주군립요양병원은 총 12기의 투석기를 보유하고 1일 24명의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주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힘찬 출발”

‘2025 진안홍삼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 전춘성 군수 등 자원봉사자 150여명 참석

진안군은 지난 19일 오후 군청 강당에서 2025 진안홍삼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춘성 군수와 이재동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성인·청소년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제작한 진안홍삼축제 홍보 릴스영상 상영, 자원봉사자 결의문 낭독, 자원봉사자 교육 등이 진행돼 축제 준비의 열기를 더했다. 이번 발대식은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기를 높이고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홍삼특공대’ 자원봉사단은 성인과 청소년 150여명으로 구성된 축제 기간 동안 체험부스 운영, 교통안내 환경 정비, 방문객 환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단순 지원을 넘어 진안의 얼굴이자 홍보

대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홍삼축제는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맑고 힘찬으로 완성된다”며 “여러분의 활약이 관광객에 감동과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동 이사장은 “봉사는 작은 수고로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힘”이라며 “진안을 대표하는 축제를 위해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전북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성과 공유

전북대학교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전북 공공보건의료 성과를 공유하며 든든한 지역 의료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짐을 확인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19일 데메이 호텔에서 열린 ‘2025 전북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성과공유 심포지엄’에 참여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성과를 알리고 향후 과제를 모색했다.

퇴원 후 지역사회로: 돌봄통합과 책임의료기관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짚고, 촘촘한 지역 의료 협력모델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예수병원, 군산의료원, 원광대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60여 명의 의료·보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상황을 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동향 유입식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 정책 대응 방향(변재관 위원장) △전주시 돌봄



통합 추진 사례(권근상 전북의대 교수) △내 권역별 퇴원환자 연계사업 현황 발표 등이 이어졌다. 또한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정읍아산병원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의를 통해 퇴원환자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이 활발히 논의됐다.

전북대병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응급 이송·전원 협력사업 △간염 및 환자안전관리사업 △재활의료 지속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고향주부모임, 전북쌀 소비촉진 캠페인 펼쳐

전북농협과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가 전북쌀 소비 촉진을 위해 힘을 모았다.

고향주부모임 전북도지회는 지난 19일 부안군 백산비대적체육센터에서 열린 ‘청춘방앗간’ 행사장 부스에서 전북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하며, 농심천심운동과 건강한 식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회원들은 농협중앙회의 후원을 받아 직접 만든 식혜, 인절미, 쌀가루 구운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나눔과 풍성한 먹거리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백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숙인잡지 만들기 농기구 체험, 올바른 식습관 교육은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체험의 장이 됐다. 학생들은 우리 쌀의 소중함을 배우고 농업인의 노고를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경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쌀 소비 촉진 행사에 참



게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전북농협과 협력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전북쌀 소비를 확대해 희망농업·행복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농협은행 전북, 1500만원 상당 ‘사랑의 쌀’ 기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

전북본부는 지난 18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1,500만 원 상당의 쌀 5,00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쌀은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도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한명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은영 사무처장이 함께 참석해 우리 쌀로 전하는 따뜻한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우리 쌀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도민 모두가 보듬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명절마다 정기적인 기부물 이어오고 있다. /오상근 기자



여성가족재단, 예비·신혼 ‘결혼전국 부부캠프’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19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예비·신혼부부)결혼전국 부부캠프(1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건강하고 평등한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가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부캠프에는 예비·신혼부부 총 10쌍이 참가해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부부 의사소통 특강 △결혼생활을 위한 재무특강 △협력형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에 참가자들은 하루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배우고 느낀 점을 공유했다.

전정희 원장은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시작”이라며 “이번 캠프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캠프는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캠프 2차는 9월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의회,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교육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가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교육을 실시했다.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에서 의원들은 ‘부패 없는 청렴 의회’ 조성을 위한 청렴 서약서를 낭독하고 서명함으로써 결의를 다지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김윤천 강사를 초빙해 법정 의무교육인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 행동강령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 관련 제도와 정책, 갑질 예방 등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제를 사례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의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부당한 직무수행을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시 인후2동 지사협, 베이킹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양우천)는 인후2동 주민센터서 지역 아동 30명과 함께 하는 특별한 베이킹 체험 프로그램 ‘Bake your Dream’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직업탐색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은 직접 케이크를 만들고 꾸미며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케이크를 함께 나누며 따뜻한 의미를 더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YWCA가정폭력 등 통합상담소, 성매매추방 캠페인

원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지난 19일 성매매추방 주관을 맞아 시민들에게 성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광한루~십수정 일대에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남원시 여성가족과, 남원경찰서, (사)남원YWCA와 함께 진행하는 합동 캠페인으로, ‘성매매 없는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성매매의 심각성과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문화체험 힐링나들이

남원시 동부노인복지관은 지난 19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복지관 이용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광한루원과 피오리움을 방문하는 문화체험 힐링나들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와 역사 체험 그리고 미디어아트 예술 관람을 결합해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높이고자 마련, 일정은 △광한루원 명소 관람(문화해설사 해설 포함) △피오리움 미디어아트 전시 관람 △체험소감 나눔으로 구성됐다.

어르신들은 체험 후 소감 나눔 시간을 통해 서로의 감상을 공유하며 공감과 유대감을 더욱 깊이 쌓을 수 있었다. /남원=김기두기자